물은 우물에서, 부동산데이터는 한국감정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한 민간이용 활성화 비약적 향상-

작성자 : 한국감정원 정보전산실 정보화기획부 김대철(053-663-8474)

1. 추진배경

국가가 보유한 각종 행정정보에 대한 활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민간의 새로운 서비스·상품 개발을 위해서다.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가능해져 국민생활에 밀접한 국가정보자원이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는 공공정보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개발·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정보자유법」을 제정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정보자원에 대한 제공 근거와 통합제공창구(www.data.gov)를 마련하였다. 영국은 「공공정보 재이용 규칙」을 제정하여 정보자원 제공을 확대하고 있으며, 통합제공사이트(www.data.gov.uk)를 오픈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도 지난 몇 년간 정부의 데이터가 중요한 가치창출의 기반임을 인지하고 공공데이터 공개, 개방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국가정보자원을 개방하여 공공 및 민간이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유자원포털(www.data.go.kr)을 '11.7월 오픈하고 활용 가능한 국가공유자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감정원도 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 추진내용(또는 추진경과)

한국감정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민간사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현황을 파악했다.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을 바탕으로 핵심데이터 선정, 오픈포맷 전환, API 비중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한국감정원의 핵심데이터는 부동산 통계데이터로 선정되었다. 한국감정원에서 생산하는 데이터로서 자체 생산·가공하는 데이터였고, 민간에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였기 때문이다.

부동산 통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Open API* 서비스를 제공했다. Open API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다.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에서는 Open API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Open API 개발 도구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Open API 개발비용이 비약적으로 감소했다. 비약적으로 감소했다는 의미는 외부에 발주를 주고 개발해야 했던 시스템을 내부 인력만으로 개발 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Open API : Open 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의 약자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 특정 데이터를 제공받는 전산규약

공공데이터 개방 시, 개방하는 데이터의 종류 및 건수를 확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방하는 데이터의 품질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한국감정원에서는 대외기관(한국DB 진흥원)을 통해 공공데이터 DB 품질인증을 실시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 DB에 대한 정합성을 심사·분석하여 등급을 매겼다. 한국감정원은 데이터 정합률이 99.53%인 Gold Class를 획득하였는데, 국내 평균 수준이 94.79%인 것을 고려했을 때 공공기관 최고수준이다.

정부 3.0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임을 고려했을 때, 공공데이터 개방도 데이터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제공하기보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입장에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은 국가공유자원포털(www.data.go.kr)에서 한국감정원이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사용자 맞춤형 공공데이터 목록으로 설계하고 정비하고 있다.

3. 실패 및 갈등 극복과정(타기관, 이해집단과의 협력 포함)

한국감정원에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이 없었다. 때문에 다른 부서와 협조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정부에서 배포한 데이터 개방 지침을 준용하고 본사 각 부서별로 데이터 개방 담당자를 지정하였다. 지정된 개방 담당자에게는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 각 부서에서 데이터 개방 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였다. 구축된 데이터 개방 체계로 부서별로 생산하는 공공데이터를 법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데이터 개방 여부에 대한 심사 속도가 빨라졌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공공데이터를 개방 할 수 있었다.

Open AP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했다. Open AP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Open API 개발, 제공 홈페이지 구축, Open API 관리 홈페이지를 구축

해야 한다. 하지만 위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 그래서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할 방법을 모색했다. Open API 서비스 제공과 관리 기능은 국가공유자원포털(www.data.go.kr)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었다. 문제는 Open API를 어떻게 구축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Open API개발 문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Open API 개발 도구 활용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국가공유자원포털에 Open API 개발 도구 신청을 통해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었는데 프로그래밍적인 지식이 있어야 설치 가능했다. 함께 제공된 매뉴얼과 몇 번의 문의를 통해 Open API 개발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Open API 개발 도구는 DB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할 것인지만 설계하면 손쉽게 Open API를 제공할 수 있었다. 부동산 통계 DB를 분석하여 추출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이것을 통해 Open AP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히 Open API 제공뿐만 아니라 Open API를 활용할 사용자들을 위한 매뉴얼 작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직관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템플릿을 채택하고 이 템플릿에 맞게 표준화 하여 작성했다. 그래서 매뉴얼을 활용하는 사람이 매뉴얼 사용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그리고 사용예시를 작성함으로써 Open API의 정확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4. 주요성과

Open API 형태의 부동산 통계 데이터 제공 범위가 비약적으로 확장되었다. 지가변동률, 지가지수, 부동산 거래현황 등 부동산 통계별 제공형태별 96종의 부동산 통계 데이터를 Open API 형태로 제공하였다. 이것은 부동산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 맞춤형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감정원은 현재 21개 종류의 부동산 데이터를 국가공유자원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다. 국민들이 어떤 컴퓨팅 환경에서나 활용 가능 하도록 CSV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손쉽게 활용 할 수 있다.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제공으로 ‘14년 142건이었던 공공데이터 활용건수가 ‘15년 10월 현재 945건으로 803건 상승했다.

부동산 DB의 품질인증을 통해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데이터에 대한 대외 공신력이 강화되었다. ‘14년 한국감정원의 DB품질인증 점수는 98.12%였지만 ‘15년 99.53%로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지속적으로 부동산DB에 대한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DB표준화 및 품질 관리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5. 성공요인 분석

공공데이터를 개방 할 때, 정부제공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했다. 부동산 데이터를 제

공 할 때, 국가공유자원 포털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제공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Open API 서비스 제공에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Open API 개발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공공데이터 개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개방이 가능했다.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를 교육함으로써 전문성을 부여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검토 여부 심사를 실시하고 개방할 공공데이터를 발굴했다. 발굴한 공공데이터는 국민들이 사용하기 쉬운 CSV방식으로 제공되었다. 공공데이터 개방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이슈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다.

전문성 있는 DB 인증기관을 통해 DB품질관리를 수행함으로써 부동산 DB에 대한 대외 공신력을 강화할 수 있었고 DB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었다.

6. 향후계획

개방 가능 공공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로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이 더욱 더 용이해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이것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데이터 품질 수준 100%를 목표로 데이터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감정원의 데이터 공신력을 강화할 것이다.